

<2016년 7월 13일 수요말씀>

삼위일체가 행하시는 표적은
생활 속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
삼위일체가 함께하시는 것이 표적이다

본 문 사사기 6장 36-4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 <표적>에 대해 말씀했습니다.

주제는 ‘삼위일체가 매일 표적을 보여 주시나
다 깨닫지 못한다.’ 였습니다.

말씀을 듣고 <표적>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.

◎ 오늘도 <표적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주제는 ‘삼위일체가 행하시는 표적은
생활 속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.
삼위일체가 함께하시는 것이 표적이다.’ 입니다.

* 설교자들에게:

<수요말씀으로 보내 준 잠언>을 ‘설교식’으로 전하기다.

<말씀 시작>

◎ 먼저 **삼위일체는 어떻게 표적을 행하시는지** 말씀하겠습니다.

◆ <전능하신 삼위일체가 행하시는 표적>을 보면 신기하다.

◆ <삼위일체가 행하신 표적>은 ‘생활 속’ 에서도 일어난다.

그러나 봐도 실감이 안 나고,

그저 ‘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’ 로만 생각한다.

◆ 알고 보면,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표적 역사>는 ‘연속’ 이다.

◆ <표적>이란 무엇일까?

순간 병이 낫고,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, 서해안 밀물이 멈추는 등
당장 눈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만 <표적>이 아니다.

작은 일이나 큰일이나

자기도 못 하고 다른 사람도 모두 못 하는 일인데

그때 ‘삼위일체가 함께하시어 행하게 된 것’ 이 <표적>이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표적>을 ‘생활 속’ 에서 행하신다.

고로 사람들은 <표적>을 보고도 모르고,

그저 ‘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일’ 인 줄 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표적>을 행하실 때
나무가 점점 크듯이, 꽃이 점점 피듯이, 열매가 점점 크듯이
조금씩 점진적으로 행하다가 되게 하신다.

고로 사람들은

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자기가 행하니 된 것으로 생각한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표적>을 행하실 때,
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행하게 하신다.

고로 사람들은 자기나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서 행하고

그로 인해 그 일이 되어지니,

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스스로 행하여 된 것으로 생각한다.

- ◆ 무엇이 즉시 변화되거나 즉시 이루어지면
“신기하다. 기적이다. 표적이다.” 한다.

그러나 자기가 원하던 것이 열흘, 한 달, 몇 달, 몇 년 만에 되면
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행하고 여건이 돼서 된 것으로 생각한다.

시계의 시침을 보았느냐.

한 번에 확 움직이지 않고, 조금씩 점진적으로 움직인다.

이와 같이 하나님은 ‘어떤 표적’을 행하실 때,
마치 시계의 시침을 움직이듯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.

고로 며칠, 몇 달, 몇 년씩 지나고

<때>가 돼야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적이 많다.

- ◆ <하나님의 종교 역사>도 그러했다.

몇백 년, 몇천 년씩 흐르면서
점진적으로 ‘역사’를 일으키시고 ‘표적’을 일으키셨다.

그러면서 ‘하나님의 뜻’도 이루셨다.

사람도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. 영도 그러하다.
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믿고 행하면서,
목적을 두고 생각도, 행위도, 삶도, 영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고,
결국 ‘완전한 모습’이 된다.

이것을 두고 “**홀연히 변화됐다.**” 한다.
이것이 <표적>이다.

삼위일체가 이렇게 <표적>을 행하시니, ‘표적’임을 모른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어느 때는 합당하면 - 순간 변화시켜 안 될 것을 되게 하신다.

그러나 대부분 - 물이 서서히 끓듯이, 밥이 서서히 되듯이,
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이나 오랫동안 커서 열매를 맺듯이
<매>를 맞춰 조금씩 점진적으로 행하시며
자기 혼자서는 못 할 일도 이루시고,
사람의 힘으로는 못 할 일도 이루신다.

◆ <삼위일체가 행하시는 과정>을 보면,

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시간이 걸리듯 조금씩 점진적으로 행하신다.

사람같이 점진적으로 행하시니,
사람들이 ‘삼위일체가 행하신다는 것’을 모른다.

그냥 사람의 손이 가고 몸이 가서 이루어지니,

<사람>이 했다고 생각한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가 ‘사람’ 을 쓰고 행하신 것이다.

<전기>가 그냥 나타나지 않고 ‘기계’ 를 통해 나타나서
그 ‘전기의 힘’ 으로 물건을 만들어 내니,
<기계>가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한다.

<전기>가 없으면 ‘기계’ 는 역할을 못 한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도 ‘인간 기계’ 를 쓰고 행하신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이제 표적은 무엇인지 말씀하겠습니다.

◆ <표적과 기적>이란,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시는 것이며,

삼위가 함께하심으로 인해 인간이 행하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

◆ 인간 스스로 홀로 한 것은 ‘인간의 기적과 표적’ 이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사랑하는 자들’ 에게

매일 은밀히 ‘표적과 기적’ 을 행하신다.

◆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자세히 보아라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시는지,

삼위일체가 자기를 통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섬세히 보아라.

◆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‘감동’ 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.

이것이 성령이 함께하신 <표적>이다.

그 감동을 받고 성령과 함께 행한 것이 <표적>이다.

그러나 그 마음이 <자기 마음>인지 <성령의 마음>인지 모르니,
성령이 함께한 표적인지 모르는 것이다.

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

<인간의 마음과 생각>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행하게 하신다.

고로 그것이 ‘삼위가 함께하셨다는 것’을 모르고,
그저 자기가 평소에 행했기에
그런 식으로 마음먹고 생각한 줄 안다.

- ◆ 기도를 깊이 하면 ‘육성’이 짝 사라지니,
<자기 생각>인지 <성령과 주의 생각>인지 알게 된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<인간의 마음>을 감동시키고 <생각>나게 하면서
그 <몸>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.

그러나 <자기 몸>이 행하니, ‘자기가 하는 것’으로 안다.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‘그 사람의 실력껏’ 쓰신다.

이는 마치 ‘그릇의 크기’만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다.

그릇이 작으면 음식이 많아도 적게 담을 수밖에 없고,
그릇이 크면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다.

이와 같이 삼위일체도 ‘그 사람의 실력껏’ 쓰시니,
<그 사람의 차원>만큼만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.

고로 사람들은 ‘자기 차원’에서 자기가 행하는 줄 안다.

다 해 놓고 보면,

어떤 사람은 “내가 이것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!” 하고,

어떤 사람은 “삼위일체와 주와 함께 행했다! 표적이다!” 한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-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원하시면,
거의 ‘사랑하는 자들의 육신’을 쓰고 행하신다.

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는 10%에 불과하다.

- ◆ 인간이 몰라도

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며 가신다.

그리고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기뻐하게 하신다.

- ◆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던 중,
하나님께 여쭙며 기도했다.

“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
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보여 주소서.

내가 ‘양털 한 뭉치’를 타작마당에 둘 것인데,
이슬이 내릴 때 <양털>만 젖어 있고 <주변 땅>은 마르면
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어
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.” 했다.

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<양털>을 가져다가
양털에서 ‘이슬’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.

이에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

“이번 한 번만 더 <양털>로 시험하게 하소서.

이번에는 <양털>만 마르고,

<주변 땅>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.” 했다.

이번에도 그대로 되었다.

핵심이 무엇이나?

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셨다는 것이다.

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심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했다.

<하나님이 함께하신 것>이 ‘표적’ 이다.

- ◆ 한국 서해안 밀물이 멈춘 표적,
말레이시아 포덕슨 해변에서 밀물이 들어오다가 멈춘 표적,
삼위일체가 함께하심으로 인간이 못 할 일을 한 표적 등
성경의 창세기 이후 <하나님이 행하신 표적>이 많다.

하나님은 뜻을 펴시면서 개인에게도, 섭리사에도, 종교 세계에도
원하시면 - 계속 <표적>을 행하며 가시는데,
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살고 있다.

- ◆ **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,**
성령이 행하시는 표적, 성자가 행하시는 표적은
매일 ‘사랑하는 자들’에게 은밀히 나타난다.

- ◆ 자기 스스로는 100% 못 할 것인데 함께해 줘서 했다면,
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그것이 <표적>이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섭리인들 모두 실제 육신이 꼭 죽을 데서
살려 주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.

세상 사람들도 육신이 꼭 죽을 데서
살려 주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.

보통 세 번, 열 번, 스무 번씩 있다.

육신뿐 아니라 너희 <영>이 살아 있는 것도 표적이다.
삼위가 함께하고 지켜 주고 이끌어 준 표적이다.

육도 영도 신앙도 살아 있으면서,
시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를 행하니
너희는 <가장 큰 표적>을 본 자들이다.

6000년 역사를 두고 ‘창조 목적’을 향해
조금씩 점진적으로 행하다가 마지막에 <휴거 표적>을 이루었다.

- 환난 가운데 <휴거>를 이룬 것이 표적이고,
-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표적이고,
- 믿은 것이 표적이고,
- 힘들어도 시대 말씀을 지키며 행한 것이 표적이고,
- 계속해서 차원 높여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표적이고,
- 내 보낸 자가 살아 있어 계속 역사를 펴 나가는 것도 표적이다.

모두 <삼위일체가 함께한 표적>이며,
그로 인해 <너희가 행한 것이 표적>이다.

끝까지 따라와라.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.

사랑하는 너희에게 매일 은밀히 <표적>을 행할 것이다.”

◎ 말씀 마쳤습니다.